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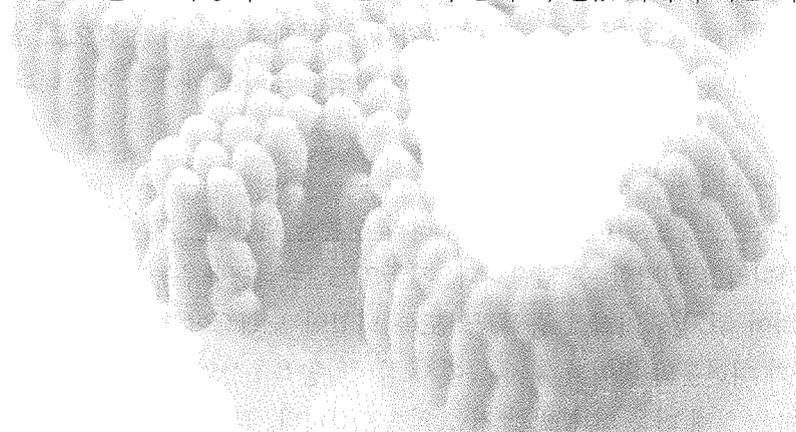
쌀개방 남의 일이 아니다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쌀협상 국회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비준으로 쌀시장개방은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 유예가 결정되었고, 그 대신 의무수입물량은 당장 내년 부터 국내 쌀 수요의 4%(23만여톤)에서 10년 후 7.96%(4만여톤)로 증가한다. 그러나 이는 1988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14년의 국내 쌀 수요를 예측했을 때 그 수준은 약 12%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측에서는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난다지만, 그래도 쌀시장의 전면개방을 유예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다 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우선적으로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희생 의지와 대책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70년

136Kg에서 지난해에는 82Kg으로 급감하고 2014년에는 70Kg도 안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입맛의 서구화와 저출산 등으로 쌀소비량은 급감, 쌀재고가 넘쳐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른 시장경제 도입과 의무수입물량 도입에 따라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보전장치를 마련했다지만 이는 단지 소득보전 정책이지 쌀값 하락 추세를 지속할 경우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다.

결국 정부가 쌀협상 비준이 개방화 시대의 대세인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선 국민의 제1의 식량인 쌀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소비확대(가공, 유통 등)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 '쌀 가격이 떨어져도 시장에 맡기고, 쌀값 하락에 따른 피해는 쌀소득보



전직불제로 보완하겠다' 라는 정책기조로는 정부가 쌀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농정불신은 갈수록 깊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우리의 쌀 생산 기반을 어느 선까지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소득보전 등의 정책을 수립해 주겠다' 는 것이 우리 농민이나 국민에게 솔직한 것이 아닐까 싶다.

특히 세계적으로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곡물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개도국의 식량수요가 증가하는 등 식량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식인 쌀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매우 위험한 모험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경우 '99년도에 관세화를 했다고 하지만, 같은 해 7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식량안전보장을 농정의 핵심으로 삼고, 총리 주관 아래 쌀, 쇠고기, 우유 등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농업 제반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점은 우리와 대조적이다.

이러한 쌀산업 위기의 여파는 우리 낙농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 문제점 역시 유사하나, 규모나 중요성 측면에서 문제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UR협상 실패와 일관적인 낙농정책 추진 미비로 수입 유제품이 95년 대비 약 8배가 증가함으로써 원유수급불균형은 주

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협상이전에 과제였던 시유 외에 치즈 등 '국내 유제품시장 형성'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수요자 중심의 낙농시스템 개편은 낙농위원회 중심이든, 낙농조합 중심이든 결국 현 농가의 쿼터를 시유소비 수준인 약 150만톤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낙농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비전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쌀산업보다 더 취약한 우리산업의 구조를 봤을 때, 개방의 피해는 더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번 제도의 개선은 어쩌면 우리 낙농산업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선택의 기회임이 틀림없다. 이에 지난 11월 1일 발표한 협회시안은 이런 위기의식과 고민속에서 탄생한 산물(産物)이다. 우리 낙농산업의 해답은 정부의 낙농생산 기반유지를 위한 확고한 목표제시와 함께 전국단위 수급조절 시스템 마련에 있으며, 이를 위해 생산자보드인 '원유판매위원회'를 통해서 원유생산주체인 낙농가가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협회시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추곡수매제 폐지와 쌀값 폭락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에게 닥칠 위기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제 선택의 키는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낙농가에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낙농가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